

이랜드NC, 5년간 현대백화점 위탁경영

송원과 장기 계약...직원 고용승계 3년 유지 밀리오레와 투트랙 운영...지역상권 '위협'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그룹 이랜드가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을 위탁경영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백화점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이랜드와 ㈜송원 등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오는 6월 2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5년간 임대해 위탁경영하기로 하고 최근 ㈜송원과 장기임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이랜드리테일이 5년간 장기임대 위탁경영 방식으로 ㈜송원이 소유한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운영하며, 80여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3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15년 동안 송원백화점을 위탁운영해 온 현대백화점은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고경주 ㈜송원 대표는 "현대백화점과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자를 찾게 됐고, 1년 단위 계약에 따른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인수료율이 높은 이랜드와 장기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랜드의 위탁경영방식을 통한 광주 입점으로 지역 백화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랜드리테일은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리모델링해 NC백화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NC백화점의 점포 수는 10개로 업

계 3위인 신세계백화점과 같아진다.

우선 NC백화점이 100개를 웃도는 이랜드 자체브랜드를 활용해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면 신세계나 롯데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지역 골목상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 NC백화점의 광주 입점이 확정됨에 따라 이랜드가 지난 2011년 인수한 광주 충장로 옛 밀리오레 건물 역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함께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역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NC백화점이 입점하더라도 고객 패턴이 달랐던 기존의 현대백화점을 이어가는 것이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충장로 상권

에도 또 다른 백화점을 준비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랜드 측은 충장로 밀리오레 자리에는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중심으로 20~30대 젊은 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현대백화점 자리에는 기존 백화점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중저가 및 명품 위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장을 배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수를 결정한 현대백화점은 1998년 송원백화점과 10년간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에 진출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매년 계약을 연장해 총 15년간 송원백화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뒤 경쟁 백화점들과의 매출액 차이 등에 부담을 느껴 올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화점 5일~21일 봄세일

광주 지역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5일부터 일제히 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은 오는 5~21일 17일간 봄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세일물량을 작년 같은 행사 때보다 20% 확대하고 특가상품도 10% 늘려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봄 정기세일에

서 남성·여성·잡화브랜드, 아동·스포츠·리빙 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모피·해외패션·혼수용품 행사 등을 전면에 내세워 고객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또 행사기간 중 아이디스 이월상품전과 노스페이스 특별 초대전, K2·에이글 특가상품전 등 다양한 특가상품전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랜드리테일이 계약 만료되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을 5년간 임대해 위탁운영하기로해 지역 백화점 업계의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 물가 '주춤'

3월 소비자 지수 0.3%p ↓

3월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 전남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3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2010년=100)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 같은달대비 1.0% 상승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1.3%에 비해서는 0.3%p 낮았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는 106.2로 전월보다 0.6%하락했고 전년 같은달보다 0.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4%하락했고, 전년 같은달에 비해 2.1%상승했다.

3월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으로 전월보다 0.1% 하락했고, 전년 같은달보다 1.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고 전년 같은달보다 0.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4%하락했고, 전년 같은달대비 2.1%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향토자원 발굴...농어촌 고용창출"

신임 최범용 농어촌자원개발원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신임 농어촌자원개발원장에 최범용(사진)씨가 2일자로 임명됐다.

최 원장은 기계 및 산업공학 전문가로써 물관리 시설 설계 및 현장관리분야에서 활약해왔으며, 녹색사업처장, 금강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최 원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6차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15년 4월 1일까지다. /김대성기자 bigkim@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6억원짜리 집 사면 660만원 혜택

재건축·9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면제서 제외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거래세의 양도세 축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6억원짜리 사면 취득세·교육세 660만원 절감=우선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겨냥한 이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것이다. 집을 사도 세금을 한 톨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 법 개정으로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 데 이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생애 최초 구입자 특례가 추가된 것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의 10% 만큼 내는 지방교육세도 안 내도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말까지 9억 이하 '주택자 집' 사도 양도세 5년간 감면=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도 과격적이다. 그간 신규 주택과 미분

양 주택에 적합한 적이 있지만 기존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재건축주택이나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대상이 1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로 제한했다.

양도세 감면은 5년간 이뤄진다. 9억원 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집을 팔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집값이 3억 원 오르고 나머지 2년간 2억원이 더 올라 총 5억원이 뛰었다면, 5년간 양도차익(3억원)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내면 된다. /연남수



"위기의 양돈농가 도와주세요"

농협, 정육 소비캠페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1일 최근 돼지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의 위기극복 타개를 위해 돼지고기 정육세트 소비 캠페인을 30일까지 실시한다.

판매 부위는 '삼겹, 목심' 인기 부위

와 '전지, 후지'등 저지방 위주로 3.2kg상품을 제작해 2000세트(6분)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중앙회, 농협은행을 비롯한 지역농협 임직원들과 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본부는 매주 '월요일 돼지고기 먹는날'로 정하는 등 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銀, 中企 총력 지원 '넘버원 대출' 5000억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소기업 총력 지원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넘버원 대출 5000억 원 지원' 및 '제조업 우대 온렌딩 대출 1000억 원 지원'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선정,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내입 만기연장조치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TFT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에로 사활을 해결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 골목상권 자영업자 협약 대출 판매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